/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화제의 레이스 /

"3·1절 되새겨 한·일 공동 번영을"

女 하프코스 13위 목포 전남제일고 교사 이와마아키코씨

이와마아키코(30)씨가 여자부 하프코스에서 1시간47분42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1.0975㎞(하프코스), 3·1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에 충분한 거리였다. 홀로 만세를 부르며 결승선을 통과한 이와마아키코(여·30·岩間晶子)씨. 목포 전남제일고 일본어 원어민 교사인 그는 레이스를 마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하프코스 여자부에서 1시간47분42초를 기록, 13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풀코스(42.195㎞) 2회, 하프코스 2회 등 모두 4회를 뛰었다.

일본 도쿄(東京)의 한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이와마씨는 지난해 3월 말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육정책을 비교·연구하기 위해 목포에 왔다. 하지만 낯선 타국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체력은 점점 바닥났고, 스트레스도 심해졌다.

"달리면 생활이 즐거워요"

힘든 타국생활은 마라톤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지난해 8월 목포의 한 마라톤 동호회에서 회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신청서를 냈다. 이방인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마라톤을 시작하면서 그의 생활방식도 180도 바뀌었다. 회원들과 만나 달리는 거리가 늘면서 타국생활의 외로움은 즐거움으로 변했다. 마라톤으로 인내심도 강해지고 마인드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역사인식도 달라졌다. 이와마씨는 "3·1절의 의미를 한국에 와서 잘 알게 됐다.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공동 번영하길 바란다"면서 "즐거운 한국 생활의 길잡이가 된 마라톤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마라톤은 우리 가족의 활력소"

남편·아들·딸과 함께 5㎞ 완주 필리핀 이주여성 블랑코씨

블랑코(36)씨 가족이 5㎞ 레이스를 마친 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국 역사 아는 계기 됐죠"

문화와 얼굴 생김새는 달라도 '한가족'에게 3·1절의 의미는 같았다.

남편 노양균(44)씨와 윤형(14)양·준호(7)군의 손을 잡고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한 필리핀 출신의 이주여성 블랑코(36)씨. 레이스를 마친 그는 가쁜 숨을 고르면서 두 자녀의 얼굴에 묻은 땀을 닦아냈다. 블랑코씨 가족은 이날 마라톤 5㎞ 남자·여자부로 나뉘어 대회에 참가했다.

비록 순위권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표정은 매우 밝았다. 네 식구 모두 한 명의 낙오 없이 완주한 데다, 블랑코씨에게는 이번 마라톤이 '제2의 고향'인 한국의 역사를 아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필리핀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했다는 점에서 3·1절 마라톤 대회 참가 의미는 블랑코씨에게 각별했다.

블랑코씨는 "지난해에도 3·1절 마라톤에 참가했는데, 그 의미를 잘 몰랐다. 참가에 앞서 남편에게 3·1절의 의미를 처음 듣게 됐다"면서 "비록 짧은 코스였지만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블랑코씨는 내년에도 3·1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뜻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되새기기 위해서다. 블랑코씨는 "가족들 건강과 화합을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 마라톤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활력소"라며 "마라톤 대회 참가는 곧 '가족 소풍'을 떠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원참 〈8050〉 김종두

몽골인, 동거남 흉기로 찔러

광주동부경찰은 1일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몽골인 A(여·41)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께 목포시 용해동 자신의 집에서 같은 나라 출신 동거남 B(35)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회사운영 갈등' 버스회사 기사가 사장 살해

둔기 폭행 뒤 트럭으로 치어

화순경찰, 50대 영장

50대 지입버스 기사가 회사운영을 놓고 갈등을 빚던 회사 대표를 둔기로 때린 뒤 다시 차량으로 치어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화순경찰은 1일 말다툼 끝에 자신이 지입차량 기사로 일하는 버스회사 사장을 살해한 김모(52)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밤 11시40분께 화순군 화순읍 D관광회사에서 사장 유모(45)씨를 둔기로 때린 뒤 1t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사 차고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유씨가 자신이 휘두른 둔기를 맞고 쓰러지자 옆에 있던 기름운반용 트럭을 몰고 유씨의 허리 위로 1.5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유씨 부부와 회사운영 문제 등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입차량 기사인 김씨는 지난 2005년 D사에 들어간 이후 차량 교체 및 구매 과정 등에서 김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유씨 살해 현장에 함께 있던 유씨의 아내 박모(50)씨를 둔기로 때린 데 이어 현장으로 들어오던 유씨의 아들(25)과 버스기사 이모(50)씨 등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김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크게 다쳐 광주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산림계장이 부하 동원 '나무 장사'

반출용 무단 임도 사유지 훼손도

무안군의 산림관리를 담당한 공무원이 '나무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 소유의 사유지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1일 무안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무안군청 정모(52) 계장은 지난해 12월 20일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에 있던 김모씨 소유의 소나무 150그루를 2천440만원에 산 뒤 광주의 한 조경업체에 2천620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무안군 산림관리 감독 업무를 관장하는 공원녹지계장을 맡고 있었던 정 계장은 자신의 명의로 수목굴취허가를 낸 뒤 산림과 소속 계약직 직원 5명을 동원해 나무를 팔아치웠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은 공무외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정 계장은 이 과정에서 소나무를 실어나르기 위한 임도(林道) 확보 과정에서 남안리의 사유지를 훼손해 소유자 유모(65)씨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유씨는 "우리 산에서 5t짜리 트럭이 나무를 싣고 나온다는 말을 듣고 가보니 산길 곳곳이 망가져 있었다"며 "원래 산책로로 사용되던 좁은 길이 폭 2.5m, 길이 300m의 대로로 변한 것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계장은 "군청에 필요한 나무를 싼값에 확보하기 위해 나무를 구입했으며, 판매 차액 180만원은 고스란히 복구비용으로 들어갔다"며 "사유지 훼손의 경우 (내가) 현장에 나가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조속히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성폭행 미수 CCTV에 딱걸린 30대

쌍나팔

○…새벽에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30대 남성이 CCTV에 찍힌 도주 장면때문에 범행 두 시간 만에 덜미.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1)씨는 1일 새벽 5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이모(여·43)씨의 A주점에서 이씨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려 했으나 이씨가 거세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

○…김씨는 이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열린 가게 출입문 사이로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들어오자 놀라 달아났으나, 가게 인근에 설치된 CCTV에 도주장면이 선명하게 찍혔다는 것.

○…경찰은 방범용 CCTV 화면을 분석, A주점에서 황급히 뛰쳐나온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뒤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PEET / MEET / DEET 전문학원
[약학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MDPass 醫학원 출신이 아니라면 합격은 어렵다" 이 원마디를 위해....
심화과정 개강 3월 2일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개강 5월 3일
FINAL 예상문제 풀이 개강 7월 5일
특설1 기초시작반 개강: 3월 2일
특설2 기초 영어 개강: 3월 8일
검증된 최고의 강사진의 직접 출강 강의
특별초빙 과목 : 일반생물학
MDPass 醫학원
광주 263-5453, 430-2200 전주 255-9119
mdpass.co.kr (광주 북구청 맞은편)